

흉선종의 수술적 치료

연세의대 흉부외과학교실

문준호·강정수·김길동·정경영

연세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0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15년동안 65명의 흉선종양을 수술하였다. 연령분포는 15세에서 72세까지로 평균 47세이었고 성별로는 남자가 34명(52.3%), 여자가 31명(47.7%)이었다.

환자들의 주증상으로 중증근무력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25명(38.5%)로 가장 많았으며, 흉부 동통을 호소한 경우가 12명(18.5%), 호흡곤란이 7명(10.8%), 무증상인 경우가 9명(13.8%), 기타 12명(18.5%)이었다. 중증근무력증을 동반한 환자는 28명(42.4%)이었으며 이들 환자의 임상적 분류는 그룹 1이 1명, 그룹 2중 mild form이 11명 moderate form이 13명 severe form이 3명이었다.

수술 절개 방법으로 정중흉골 절개가 36명(55.4%), 좌측 후측방 개흉술이 12명(18.5%), 우측 후측방 개흉술이 15명(23.1%), 횡흉 흉골 절개술이 2명(3.1%)이었다. 수술시 육안적으로 주위 조직으로의 침윤이 보인 경우가 31명(47.7%)이었으며 완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50명(76.9%)이었다.

흉선종의 크기는 장경이 1mm~18cm까지로 평균 7.9 ± 0.45 cm 었으며 세포형별 분류로는 림파구형이 19명(28.8%), 상피세포형이 16명(24.2%), 혼합형이 22명(33.3%), 흉선암이 9명(13.6%)이었다. 흉선종의 병리학 적 검사상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18명이었다. 흉선종의 기로는 1기 28명(49.1%), 2기 11명(19.3%), 3기 16명(28.1%), 4기A 1명(1.8%), 4기B 1명(1.8%)이었다.

수술 합병증은 3명(4.6%)에서 출혈, 무기폐, 창상감염이 각각 1례 있었다. 수술사망은 없었으며 추적조사는 64명(98.5%)에서 시행됐으며 추적기간은 4개월에서 176개월까지로 평균 47.6개월이었다. 만기 사망은 11명(16.9%)이었고, 사망원인으로 흉선종의 재발 및 원격전이로 인한 사망이 6명(54.6%), 흉선종이 아닌 다른 암종의 발생으로 인한 사망이 2명(18.2%), 흉선종과 관계 없는 사고사가 1명(9.1%), 원인불명 2명(18.2%)이었다.

수술 전 중증근무력증이 있어 약을 먹고 있었던 환자 28명중 완전 관해가 14명(50%), 술 전보다 약용량을 줄인 경우가 12명(42.9%), 술 전보다 오히려 용량이 증가된 경우가 2명(7.1%)이었다.